

“5060세대, 저축·노후·의료비 부담 커”

저축보험 평균 월납 보험료 49만4000원 수준

부채, 50대 8469만원 최다...스스로 노후 준비

5060세대의 저축, 노후 및 의료비 부담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화생명(주)이 보유고객 약 500만 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저축보험 평균 월납 보험료는 5060세대가 49만 4000원이었으나 3040세대는 35만 4000원으로 14만원이 적었다. 소득 대비 납입비율도 5060세대가 6.7%인데 비해 3040세대는 5.4%로 나타나 중장

년이 버는 돈 중 저축하는 비율이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스스로 노후를 준비 하느라 고된 5060세대는 부채 부담도 컸다.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통해 연령대별 평균 부채를 조사한 결과, 50대가 8469만원으로 가장 컸고 40대(8173만원), 60대(7353만원) 순으로 분석됐다. 5년전(2012년) 대비 부채

증가율은 60대가 54.1%로, 모든 연령대에 비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빚 갚으랴 저축하랴 힘든 5060세대에도 또 다른 부담은 의료비다. 한화생명의 인당 평균 실손보험금 지급 현황을 보면, 2013년 77만7000원에서 2018년 94만5000원으로 21.6%가 증가했다. 특히 임원은 5년전 130만원 대비 177만원으로 36.2% 증가했고 통원은 27만4000원 대비 46.9% 증가한 40만2000원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의 5060세대 생활비를 분석한 자료에서도 2012년 대비 2017년에는 의료비가 13.4% 증가하며 통신비

(8.8%), 경조비(6.9%), 식비(5.2%), 주거비(2.7%) 등에 비해 가장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모 부양에 대한 생각도 10년 전과 달라졌다. 통계청에서 부모 부양에 대한 견해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부모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답변한 경우가 5060세대와 2030세대 모두 증가했다. 반대로 '가족이 책임져야 한다'고 답변한 경우는 감소했다. 한화생명 공소민 빅데이터팀장은 "부모는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는 생각이 커진 반면, 자녀는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줄어들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국 휘발유 가격 5주째 하락...리터당 1400원대 진입 전국 휘발유·경유 가격이 4개월 만에 하락으로 돌아선 이후 5주째 내림세를 이어가며 리터당 1400원대에 진입했다. 6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7월 첫째주 기준 전국 휘발유 가격은 전주보다 5.5원 하락한 리터당 1495.7원을 기록했다. 전국 경유 평균 판매 가격도 전주보다 5.2원 내린 리터당 1358.4원이었다. 사진은 7일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 가격표.

“새벽배송 없인 도태된다”...격화된 배달전쟁

신세계, 5년 내 온라인 물류센터 11개

치열한 경쟁, 유통업체 혁신 부를 듯



상한다. 현재 새벽 배송을 주도하는 업체는 마켓컬리(점유율 약 40%), SSG닷컴은 마켓컬리를 겨냥하고 있다. 마켓컬리보다 주문 마감은 한 시간 늦게 하고, 배송은 한 시간 빠르게 한다. 취급 제품도 현재 1만여개에서 계속 늘려갈 것이라는 방침이다. SSG닷컴은 배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 전용 물류센터인 '네오'(NE.O)를 더 짓기로 했다. 네오는 80%가 자동화돼 있는 일종의 배달 전용 창고다. 최우정 SSG 대표는 “네오는 우리의 자부심”이라고 했다. 2014년 만들어

진 네오 1호는 경기 용인시에, 2016년 만들어진 2호는 김포시에 있다. 올해 12월에 완공 예정인 3호는 2호 바로 옆에 들어설 예정이다. 3호가 들어서면 새벽 배송만 일일 1만건 처리가 가능하다. 신세계는 5년 내 네오를 전국에 11개까지 늘릴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네오를 활용한 처리 가능한 주문 건수만 26만건까지 확대된다. 마켓컬리가 쿠팡·헬로네이처·오아시스마켓 등과 벌이는 새벽 배송 경쟁에서 앞서나갈 수 있었던 건 시장 선도 기업이라는 것과 함께 프리미엄 신선식품에 강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SSG닷컴은 이 부분 또한 공략할 계획이다. 저렴한 제품부터 프리미엄 제품까지 모두 아우르겠다는 전략이다. 유기농 식재료는 물론 베이커리·반찬·밀키트(Meal Kit), 이마트 경쟁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냐"고 했다.

맛집 상품까지 다른 곳에서 구할 수 없는 상품을 모두 들여놓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반려동물 관련 제품도 있다. 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5월 온라인 쇼핑 동향'에 따르면 5월 온라인 쇼핑 전체 거래액은 전년 동기 대비 19.8% 늘어 11조2637억원을 기록했다.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대치다. 이 가운데 음식료품 거래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9.0% 증가했다. 이 같은 흐름에서 신세계가 새벽 배송에 가세하면서 '온라인 장보기' 시장 확장을 가속화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업계는 가열 경쟁을 우려하면서도 유통 대기업의 참전이 결과적으로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신세계는 후발주자로서 기존 회사들이 하지 않았던 걸 시도해야 할 것이고, 마켓컬리 등 기존 업체는 신세계를 견제하기 위해 또 다른 서비스를 선보이게 될 것”이라며 “유통 혁신은 결국 경쟁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냐”고 했다.

신세계 그랩 e커머스 회사 SSG닷컴이 지난달 27일부터 '새벽 배송'을 시작했다. 강력한 유통망과 구매력을 가진 유통 기업이 가세하면서 마켓컬리·쿠팡 등 e커머스 업체가 주도해온 배송 시장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



공기청정기·의류관리기·식기세척기 등 가전업계, 신가전 경쟁 '치열'

삼성·LG, 수익성 견인

국내 가전업체가 가전사업 부문의 수익 개선을 위해 '신(新)가전' 분야에 공들이는 모습이다. 신가전은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을 아우르는 백색가전이 아닌 공기청정기, 의류관리기, 식기세척기 등 생활 밀접형 가전을 일컫는다. 6일 업계에 따르면 LG전자는 오는 10일까지 40명 규모로 운영될 'LG 신가전 고객 자문단'을 모집한다. 고객과 소통을 통해 건조기, 스타일러, 무선청소기 등의 뒤를 잇는 신가전을 찾기 위해서다.

LG전자는 신가전의 성공 요소로 고객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왔다는 점을 꼽는다. 가령 LG 트롬 건조기는 "건조기가 세탁실이 아니더라도 집안 율하는 곳 어디든 설치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고객의 바람을 현실화시켰고, LG 퓨리케어 360도 공기청정기는 "공기청정기도 깨끗할 밀접형 가전을 일컫는다"는 고객의 아이디어에서 출발했다는 설명이다. 삼성전자는 신가전 사업에 늦게 진출했지만, 소비자들의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한 신제품을 내놓으며 발걸음을 서두르고 있다. 지난해에는 의류 관리기인 '에어드레서'를 처음 선보였으며, 올해 들어 블랙에디션을 추가하고 시장 확대에 나섰다.

LG전자는 올해 1분기 신가전의 판매 호조에 힘입어 생활가전 사업의 호실적을 달성한 바 있다. 1분기 생활가전을 담당하는 H&A사업본부는 매출 5조4659억원, 영업이익 7276억원으로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유럽, 아시아 지역의 판매가 개선된 것은 물론, 국내 시장에서 신가전의 판매가 늘어난 점이 큰 영향을 미쳤다. 2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5.4% 감소한 6522억원으로 잠정 집계됐지만, 해당 기간에도 LG전자는 건조기, 스타일러 등 신가전의 성장세를 이어간 것으로 분석된다.

삼성전자는 신가전의 성공 요소로 고객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왔다는 점을 꼽는다. 가령 LG 트롬 건조기는 "건조기가 세탁실이 아니더라도 집안 율하는 곳 어디든 설치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고객의 바람을 현실화시켰고, LG 퓨리케어 360도 공기청정기는 "공기청정기도 깨끗할 밀접형 가전을 일컫는다"는 고객의 아이디어에서 출발했다는 설명이다. 삼성전자는 신가전 사업에 늦게 진출했지만, 소비자들의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한 신제품을 내놓으며 발걸음을 서두르고 있다. 지난해에는 의류 관리기인 '에어드레서'를 처음 선보였으며, 올해 들어 블랙에디션을 추가하고 시장 확대에 나섰다.

유행, 아시아 지역의 판매가 개선된 것은 물론, 국내 시장에서 신가전의 판매가 늘어난 점이 큰 영향을 미쳤다. 2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5.4% 감소한 6522억원으로 잠정 집계됐지만, 해당 기간에도 LG전자는 건조기, 스타일러 등 신가전의 성장세를 이어간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5월에는 한국형 식기세척기 신제품 출시 소식을 전했다. 4인 이하 가구를 위한 식기세척기 신제품은 '자동 세척', '자동 열탕 건조' 등 다양한 편의 기능도 탑재했다. 삼성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들의 주거환경과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하고 가사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품을 선보이며 시장을 확대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제 866회차 당첨결과 (2019년 7월 6일 추첨)

9	15	29	34	37	39	+	12
순위	당첨개입수	1인당 당첨금액	당첨기준				
1등	9	2,240,409,000원	당첨번호 6개 숫자 일치				
2등	68	49,420,787원	당첨번호 5개 숫자 일치+보너스 숫자 일치				
3등	2,035	1,651,408원	당첨번호 5개 숫자 일치				
4등	104,919	50,000원	당첨번호 4개 숫자 일치				
5등	1,770,017	5,000원	당첨번호 3개 숫자 일치				

당첨금 지급기한: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휴일인 경우 익명입금)

광주, 대한민국 미래로

살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광주에 투자하십시오

친환경 자동차·에너지·문화산업 육성

에어가전 및 공기산업 클러스터 구축

AI 중심 산업융합 집적화 단지 조성

풍부한 우수인력 및 연구개발 적극 지원

GWANGJU